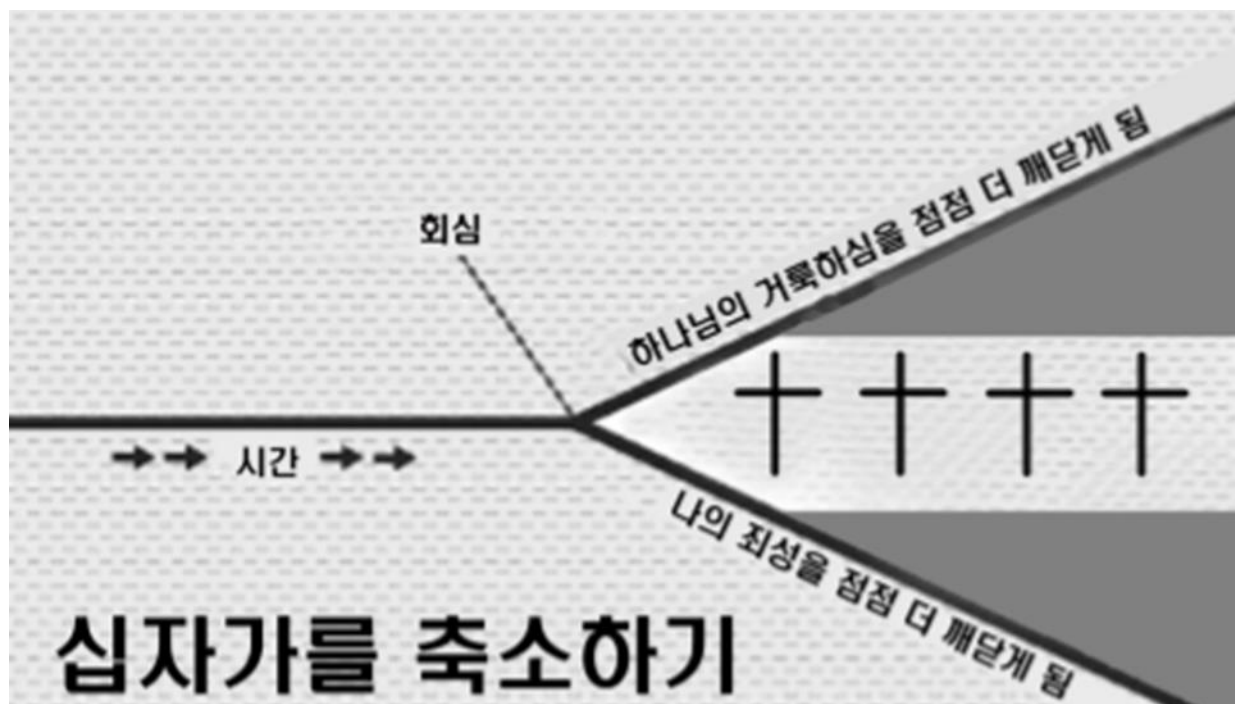


읽을 내용 (Article): 회개하는 라이프 스타일 (Lifestyle Repentance)

우리는 지금까지 어떻게 하면 지속적으로 일관성 있게 복음의 영향력 아래에서 살 것인가에 대해 생각해 보았습니다. 지난 몇 주 동안 십자가 차트를 통해 복음이 어떻게 우리의 삶 가운데 역사하는지를 시각적으로 살펴보았습니다.

우리가 살펴 본 바와 같이 크리스천의 지속적인 삶의 패턴은 회개와 믿음입니다. 우리에게 회개와 믿음이 필요 없는 적은 결코 없습니다. 마가복음에서 예수님의 첫 말씀이 “회개하고 복음을 믿으라”(마가복음 1:15)였습니다. 종교개혁자 마틴 루터의 95 개 조항들 중 첫번째로 루터는 자신이 깨달은 바를 다음과 같이 썼습니다: “우리의 주님이자, 주인이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회개하라’고 하셨을 때... 그는 믿는 자들의 모든 삶이 회개의 삶이 되기를 의도하셨습니다.” 우리는 회개할 때 우리의 행위와 가식으로 십자가를 축소하려는 경향을 고백해야 합니다. 우리는 가짜 구원자와 거짓된 의로움으로부터 우리의 애정을 끊고 우리의 유일한 소망이신 예수님께로 돌아서야 합니다.



표면적으로 회개는 간단하고 이해가 잘 되는 것 같지만, 실제로는 그렇지 않습니다. 존 칼빈이 말했듯이 우리의 마음은 ‘우상을 만드는 공장’(factory of idols)이기 때문에, 심지어 우리의 회개조차도 죄와 이기심의 수단이 될 수 있습니다. 우리는 가짜 회개에 능한 자들입니다. 복음

중심적인 삶에서 가장 필요한 것 중 한 가지는 회개를 제대로, 그리고 성경적으로 이해 하는 것입니다.

회개라는 단어는 대부분의 사람들에게 부정적인 의미를 줍니다. 우리는 우리가 정말 나쁜 짓을 했을 때만 회개합니다. 우리가 회개를 생각할 때에 로마 카톨릭의 참회(penance)의 개념이 자주 우리 머릿속에 떠오릅니다: 우리가 죄를 지으면 우리는 진정으로 잘못했다고 느끼고, 우리 자신을 많이 벌하면서, 그것을 만회하려고 합니다. 많은 경우, 회개는 하나님과 우리가 죄를 지은 상대방에 대한 것이기보다는 내가 기분이 좋아지길 바라며 내 자신에 관한 것이 되어버리고 맙니다. 우리는 모든 것이 다시 원상복귀 되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할 일을 다 했다고 말함으로 우리의 죄책감을 줄이고, 다시 정상적인 삶을 살아가길 원합니다.

예를 들어, 당신이 남에게 상처주는 말을 했던 것을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아마도 당신의 회개의 노력이 다음과 같이 들렸을 수도 있습니다: “당신에게 상처를 줘서 미안합니다. 제가 그런 말을 하지 말았어야 했습니다. 저를 용서해 주실 수 있겠습니까?” 그러나 이것이 진정한 회개입니까? 우리의 죄가 우리가 한 말로만 지은 것입니까? 예수님께서 “...마음에 가득한 것을 입으로 말함이니라”(눅 6:45)고 말씀하지 않으셨습니까?

비록 우리가 우리의 상처주는 말을 인정했다 하더라도, 상대방은 많은 경우, 우리 마음 속에 있는 깊은 증오, 분노, 질투 아니면 쓴 뿌리를 느끼고 있을 수 있습니다. 우리가 그런 죄까지 고백하지 않는 한, 우리의 회개는 진정한 회개라고 할 수 없습니다.

우리의 잘못된 회개의 경향을 어떻게 알아차릴 수 있을까요? 그 답은 우리가 우리의 죄를 다룰 때 후회(remorse)와 다짐(resolution)의 패턴을 보면 알 수 있습니다.

- **후회** (remorse): “내가 그런 일을 하다니, 믿을 수가 없어!”
- **다짐** (resolution): “다음 번에는 더 잘 할 것을 약속합니다!”

이런 식의 표현에는 우리 마음에 대한 두 가지 큰 오해가 있습니다. 첫째, 우리는 우리 자신을 너무 높게 평가합니다. 즉, 우리는 우리 자신의 죄성과 망가짐이 얼마나 깊은지(십자가 차트의 아랫문장)를 믿지 않습니다. 따라서 우리 안에 죄가 드러날 때에 우리로 하여금 ‘내가 그런 일을 하다니, 믿을 수 없어!’라며 놀라는 반응을 가져오게 하는 것입니다. 달리 표현하자면, ‘나는 진짜로 그런 사람이 아냐!’라는 것입니다. 둘째, 우리는 우리 자신을 스스로 변화시킬 수 있는 능력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우리는 우리가 다짐을 하거나 다음번에 더 노력하면 문제를 해결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이같은 패턴의 후회와 결단은 남들에 대한 우리의 태도에 좋지 않은 영향을 미칩니다. 우리가 자신을 너무 높이 평가하기 때문에 남들의 죄에 대해 가혹하고 못마땅함으로 반응합니다. 우리 자신의 죄에 대해서는 관대하지만 남들의 죄에 대해서는 혹독합니다. 그리고 우리는 우리가 자신을 변화시킬 수 있다고 생각하기에, 남들이 그들 자신을 빨리 변화시키지 못하면 힘들어 합니다. 결국, 우리는 정죄하고, 인내하지 않고, 비판적이게 됩니다.

복음은 진정한 회개로 우리를 초청하고 진정한 회개를 할 수 있도록 돕습니다.

성경에 의하면, 진정한 회개는:

1. 나를 향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향한 것입니다.

시편 51:4: "내가 주께만 범죄하여 주의 목전에 악을 행하였사오니 ..."

2. 자기 중심적인 후회가 아니라 참으로 경건한 슬픔(godly sorrow)이 그 동기입니다.

고린도후서 7:10: "하나님의 뜻대로 하는 근심은 후회할 것이 없는 구원에 이르게 하는 회개를 이루는 것이요, 세상 근심은 사망을 이루는 것이니라"

3. 단지 외형적 행동이 아니라 마음을 살피야 합니다.

시편 51:10: "하나님이여, 내 속에 정한 마음을 창조하시고, 내 안에 정직한 영을 새롭게 하소서."

4. 죄의 형벌과 세력으로부터 건짐을 받기 위해 예수님을 바라보는 것입니다.

사도행전 3:19-20: "그러므로 너희가 회개하고 돌이켜 너희 죄 없이 함을 받으라. 이같이 하면 새롭게 되는 날이 주 앞으로부터 이를 것이요, 또 주께서 너희를 위하여 예정하신 그리스도 곧 예수를 보내시리니"

우리의 죄를 변명하거나 잘못된 후회와 다짐의 패턴으로 흐르는 대신 복음의 진정한 회개는 우리의 죄를 변명하거나 잘못된 패턴의 후회와 다짐에 빠지지 않고 진정한 깨달음과 회개로 인도해 줍니다.

- **깨달음:** "내가 정말 그 일을 했습니다." (이것이 진짜 내 모습입니다)
- **회개:** "주님, 용서해 주십시오. 당신만이 저의 유일한 소망입니다."

우리가 복음의 빛 안에서 사는 법을 배울 때, 이같은 참된 회개는 일상적인 일이 됩니다. 우리는 더 이상 우리 자신의 죄에 대해서 놀라지 않고, 우리의 죄를 더 정직하게 인정하게 됩니다. 그리고 우리는 더 이상 우리 자신을 고칠 수 있다고 믿지 않음으로 더욱 신속하게 용서와 변화를 위해 예수님께 나아가게 됩니다.

죄는 단지 행동이 아니라, 상태 내지는 컨디션입니다. 그래서 진정한 회개는 가끔해 보는 연습이 아니라 삶의 스타일이 되어야 합니다. 회개는 예수님을 영접할 때 한번 하는 것이나, 죄책감을 느낄 때 간혹 하는 것이 아닙니다. 회개는 계속해서 이뤄져야 하고, 죄에 대한 하나님의 책망은 우리를 향한 하나님 아버지의 사랑의 증거임을 알아야 합니다. "무릇 내가 사랑하는 자를 책망하여 징계하노니 그러므로 네가 열심을 내라 회개하라" (요한계시록 3:19). 자, 당신은 무엇을 회개해야 합니까?